

KCC, 소외계층에 성금 11억6000억원



KCC(대표 정몽익)는 소외계층 돕기 성금 11억 6000여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월9일 발표했다.

성금은 KCC 정몽진 회장과 정몽익 사장, KCC 건설 정몽열 사장 등이 내놓은 사재 10억원에 전 계열사 임직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돈을 모아 마련했으며, 저소득·소외계층 가정의 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CC 관계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C는 그동안 1사1촌 운동,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지역 봉사활동, 터키 지진피해 복구 지원, 범현대가(家) <아산나눔재단> 설립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화학저널 2013/01/09>